

# “개교 70주년 축하... 인재 양성 위해 써주세요”

## 곽범수 옥토개발 대표 전북대에 발전기금 기탁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전북 연고기업인 (주)옥토개발 곽범수 대표가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곽 대표는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지역 거점대학이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소 생각을 발전기금으로 환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대가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라는 대학의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 발전기금의 일부를 대학이 진행하는 ‘현와·현수 캠페인’에 지칭 기탁하기로 했다.

전북대 이남호 총장은 8일 곽 대표를 대학에 초청해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주)옥토개발은 구조물 철거와 시설물 유지·관리, 포장공사 등 건설 분야 전문 기업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전북 연고기업인 (주)옥토개발 곽범수 대표가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 ▶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 고창농기센터 송진의 소장, 수상 영예

고창농업기술센터 송진의 소장이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송진의 소장은 인사혁신처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 공무원상을 수상하는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선정돼 지난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 소장은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창군이 귀농·귀촌 성공모델로서 전국에서 귀농·귀촌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고창군민의 패밀리 5563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귀농 1번지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맞춤형 작물 재배기술 보급에 앞장서고 전문화된 귀농귀촌학교 교육운영으로 귀농인의 자립 역량 향상에 공헌해 왔다.

고창군에서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귀농·귀촌정책을 펼쳐 2016년 말 기준 1405세대 2332명이 귀농귀촌하는 성과를 거두며 농촌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송진의 소장은 “도시민의 유입으로 현재 고창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활기가 넘치고 있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2015년부터 미래의 새로운 유망분야로 떠오르는 치유농업을 도입하여 치유농장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현재 추진 중이다”라며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도시와 농촌, 인간과 자연이 공감하는 감성농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 위도면 김덕진 산업팀장, 대통령상 수상

“이처럼 큰 상을 받게 된 영광은 함께 한 동료와 주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만들기에 더욱 정진해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선 행정에서 전문성을 갖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 수상하는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상에 부안군 위도면 김덕진(56) 산업팀장이 수상했다.

공무원의 자긍심과 활력을 제고하는 권위 있고 명예로운 상을 수상한 김덕진 팀장은 지난 2014년 부안 변산비밀길 조성을 전담해 마실길 특허출원, 2011년 국토부 해안 누리길 지정,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5대 명품 길 선정 등에 부안군 관광홍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욱이 김덕진 팀장은 제38회 청백 봉사상 수상에 이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까지 부안군청 최초로 권위 있는 공무원상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평소 근검절약하면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도 매일 직원 게시판에 아름다운 글과 사진 등을 꾸준히 전달해 조직 내 활력 바이러스를 불어 넣는 김 팀장은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 부안군 장애인복지회관 등 소외계층에도 관심을 갖고 매일 일일영역을 자녀와 함께 수년째 기부해 오고 있는 등 자원봉사활동에서 앞장서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는 인사상 특전으로 특별승진·승급·성과 상여금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부여 받게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 무주군,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인재 간담회

무주군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무주읍 천지가든에서 여성인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무주군 여성인재 풀을 활성화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정책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관내 공공기관을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 대표, 마을이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지역 내 여성의 역할과 양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 사회복지과 장효순 과장은 “무주군에서는 지역의 여성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보유한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 아지고 있는 만큼 노블리스 오블리제 무주운동으로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군, 준비된 예비맘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이 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해피맘 파워맘’ 프로그램을 8일 봉동지역(완주군 근로지중합복지관)과 이서지역(예곡 10단지 내 별마부작도서관)에서 첫 문을 열었다.

해피맘 파워맘 프로그램은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통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편안하고 행복하게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된다.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 권역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까지 운영된다.

특히 임신부의 심신안위를 위한 명상시간, 요가 및 임신과정에서 수반되는 증상관리방법, 분만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순산요가 등이 운영된다.

또한 임신 중 소홀하기 쉬운 영양관리, 산생아 케어방법 및 모유수유, 산후조리방법, 내 아기를 위한 출산용품 만들기, 월령별 이유식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 순창고 행정동문회 정기총회... 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순창고등학교 행정동문회 가 지난 7일 관내 해오름식당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가족한마음 행사 등 올해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순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현재 순창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3학년 학생 5명에게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의 인재로 자라주기를 당부했다.

최영록 동문회장은 “순창고등학교 행정동문회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모임이다”면서 “앞으로 후배들의 장학금 지급은 물론 모교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 조희현 전북경찰청장, 군산서 활력충만 현장간담회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이 8일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를 방문하여 일선 경찰관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지난해 치안성과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며 군산지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복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에 유공이 있는 경비교통과 김원중 경위 등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경찰발전위원회 등 협력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경 협력치안체계 구축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어 현장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청장과 직원들의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을 나눴다. /군산=문정곤 기자

## 무주경찰, 안전협력팀 사무실 현판식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최근 본관 3층 안전협력팀 사무실 앞에서 경찰서장, 무주군수, 군의장, 사회기관단체장 등 10여명이 모여 이 자리에서 치안현장을 역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안전협력팀 주요업무는 범죄취약지역 주민 의견청취 후 현장진단, 관계기관과 협의 개선안을 도출 협력하고, 방범용 CCTV·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상식 비상벨 설치,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민우충포 안전관리, 유해조수구제 해제총기 현장확인 적정여부 심의, 세계태권도대회 및 구원동 관광지, 반딧불축제 치안현장 지원, 경비업체 총기 안전관리, 화약류 보관 및 취급장소 현장진단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전국 최초로 ‘안전협력팀’이 운영되며 무주경찰서 특수시책이기도 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순창경찰 팔덕파출소, 영농철 농기계 사고 예방 홍보

순창경찰서 팔덕파출소(소장 문경주)에서는 순창군 팔덕면에 있는 마을회관을 순회 방문하여 회관에 모여 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영농철 농기계 조작 미숙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 전화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촌지역 대부분 농기계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장비 없이 조작 미숙 및 부주의에 의해 차량과 부딪힐 경우,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한해 농사가 시작되는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진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로 기본적인 교통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설명을 실시하였다. /순창=이왕원 기자

## 김제시 교월동, 노인사회활동참여자 활동교육 실시

김제시 교월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태한)는 8일 2층 회의실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사전안내 및 활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사업 추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설명, 교통안전 및 응급상황 대처 요령, 야외활동이 많은 참여 어르신들에게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사례에 따른 대응 방법 설명 등으로 진행되었고 어르신들의 진지한 경청 속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교월동에서 시행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공익활동으로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월10회(1일 3시간, 주 3회) 진행되며 참여 어르신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노년기에 건강과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관촌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랑의 나눔 봉사

관촌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홍순금) 회원 30여명은 8일 북부권노인복지관에서 희망아카데미 개강을 맞아 정성스럽게 마련한 육개장과 부침개 등을 인근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홍순금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개강식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며, 따뜻한 육개장 한그릇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장봉안 전북도옥외광고물협의회 회장 취임

사단법인 전북도옥외광고물협의회는 지난 7일 제8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이용수 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협회장, 전북도 이용민 주택과장, 회원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 및 회원들의 참여 속에 그동안 협회의 발전과 전북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식 및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오상봉 회장이 이임하고 신임 회장으로 장봉안 엔앤씨 디자인광고 대표가 취임했다.

장봉안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의 위상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겸허한 자세로 함께 호흡할 것”이라며,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자치체에 협력하여 사업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봉안 회장은 취임식 행사비를 절약해 회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15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인재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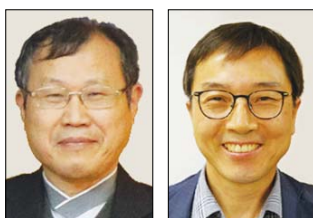


## 원광대 박맹수·한내창 교수, 인문분야 학술지원사업 우수 인증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박맹수, 한내창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16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 우수평가자 인증을 받았다.

우수평가자 인증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높은 전문성과 평가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에 참여한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자를 선정해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다.

박맹수 교수와 한내창 교수는 “그동안 관련 학계 및 연구자들로부터 ‘소신 있는 학자’라는 평을 받아 온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학문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주)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겸 편집국장 김관준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8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85	김제지사 547-888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85	진안지사 433-3084
호치지사 010-8945-9335	팔복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88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86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